

## Study of Library Science in 1974.

## 韓國圖書館學研究的回顧와 展望

沈 喞 俊  
中央大圖書館學科副教授

## 1

例年에도 많은業績을 남겼지만今年 들어서도例년에 못지 않은 몇가지論攷가 매우 두드러지게漸新味를 띠는다. 分野別로 보면圖書館學의原理에 대한問題를 비롯해서韓國의圖書館史의開拓과 그리고書誌學分野에 있어서의活字의發見, 從來의未洽했던典籍의研究등이 바로 이것이다.

## 2

圖書館學의原理에 대한理論定立에 있어서는鄭駭謨 教授의「文獻情報學의形成論理」(한국비블리아, 2輯)를 于先 들지 않을 수 없다. 鄭教授는 오래前부터圖書館學의名稱上의問題에 있어‘館’字에 대하여그語彙가機能面에서마땅치 않다는 것을指摘한 바있었고 이번 글도 이의一聯의關係에 포착된主題가 아닌가 斟酌된다. 事實 library science, librarianship, philosophy of librarianship 또는 bibliothekswissenschaft 또는 bibliothéconomie라고 부르는歐美語를「圖書館學」이라고翻譯해야 하는가 특히前近代的인保存을爲主로 하는倉庫가 아닐바에는 새로운感覺을 돌출시킬 수 있는語彙가 없을까 하는 것이鄭教授의腐心の對象인 듯하다. 그래서鄭教授는그以前에工學과도結付시킨「情報工學」과의接近도試圖한 바 있었으니 이의着想은於焉數個星霜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鄭教授는 이번 글에서 첫째「文獻情報學」의名稱構成과 그概念形成의根據를 찾기 위해서, 情報에 대한共通의概念을導出하고文獻에 대한從來의概念을檢討하므로써 이에 대한 새로운解釋을試圖하였으며, 둘째, 從來의圖書館學과情報科學의概要를對比하고그共通性和同質性을 찾아서情報科學導入의妥當性을追求하고, 셋째, 實際的社會的인要求로서의「文獻情報學」形成을 위한理論的根據를追究해 낸 것이다. (p.39) 鄭教授가 이러한論을提起하게 된 것은情報라는 것이 도래체 무엇인가 하는點에서認識世界的次元에서情報를分析해 보려고 하였으며人間과情報와의關係, 情報과知識과의關係, 知識과科學과의關係, 科學과傳播와文獻과의關係를接近시키는研究

가 이루어진結果, 人間은情報의入手와同時에知慧의發動에依해서認識·知覺·創意·發想등의思考作用을通해서知識을形成하며, 이知識을體系的으로組織化하여科學(學問)을發展시키는圖式을情報→頭腦(知慧)(認識·知覺·創意·發想)→知識→科學(學問)(p.43)展開시키었다. 即, 情報는人間의 모든思考와制御の中樞司令源인頭腦(知慧)에 어떤 새로운思考와制御活動의要因이되므로(p.65), 情報를媒介하는 것이記錄이니 이것은 곧文獻을 뜻하므로情報의媒介役을司書가하고媒介物을文獻으로 삼는以上「文獻情報學」이 곧從來의 이른바「圖書館學」과一致된다는論인듯하다.

매우次元이 높으며‘事業’보다는‘學’과結付시키는試圖로看做된다. 事實偏重된行動科學으로서圖書館學(a discipline of action), 不斷한變動科學으로서의圖書館學(a discipline of change), ‘進入된自動科學으로서의圖書館學(a discipline of automation)이最近의圖書館事業이요, philosophy of librarianship 속에 philosophy는決코哲學이나形而上學을 말함이 아니고, 原理, 原則 및 一般概念의系統的構成(a systematic body of general concept)으로서의圖書館의功用·目標·機能 및 意義등의探究만을試圖하는 것이라고 볼때 이러한論도 생각하면서構想한듯하다.

## 3

韓國圖書館史研究에 있어서는李載喆教授의「集賢殿의機能에 대한研究」(人文科學, 30輯)와李春熙教授의「門中文庫에 대하여」(한국비블리아, 2輯)을 들 수 있다.

□ 于先李載喆教授의集賢殿의機能에 대한論考는結論부터 앞세우면集賢殿을文獻센터即圖書館의인機能을 가졌던機關으로 본 것이다.

李教授가 이와 같이 보게 된 것은 그의論文에서論及하였듯이古代圖書館의 한機能이洋의東西를莫論하고 그것이學術專門圖書館임과同時에學問研究所의性格을 띠고 있었던 탓으로 그 곳에從事하는官員들은圖書의整理와出納管理를擔當하는文獻職뿐이 아니요, 오히려學問乃至研究的性格을 띤 librarian이

있다고 하며 그 實證을 守藏室의 史였든 老子와 宮中の 文書를 擔當하였든 蘭臺의 令史 및 校書郎이었던 班固와 石渠閣의 郎中出身 劉向을 들고 있다. 이들은 모두 中國에서의 目錄學者가 아니면 圖書館의 職을 擔當했던 scholarlibrarian이었다는 事實을 들고 있다. 이러한 例는 中國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高麗時代에 海東 第一의 文章家였든 金黃元의 경우도 王의 부름을 받아 延英殿에서 書籍을 管掌하였던 史實도 있었고, 西洋에 있어서도 Kallimakhos와 Apollonius 같은 분은 當代的 碩學이었으며 詩人으로 알렉산드리아圖書館의 分類目錄을 擔當했던 司書였다는 史實도 들고 있다. (p.129) 이와같이 본다면 古代圖書館은 決코 圖書만을 收藏하는 ‘곳’만이 아니고, 學者까지 兼備했던 ‘情報 센터’였다는데서 着想하여 우리나라의 弘文館의 機能에 나타난 ‘掌內府之經籍, 治文翰, 備顧問’이 곧 收藏과 整理와 出納을 意味하여 講論과 討論과 文章의 製述 및 輯刊까지 包含한 廣場일뿐 아니라 參考活動까지 한 實證이라고 解釋하고 弘文館 前身인 集賢殿의 機能에 관한 本格的인 研究를 進行한 結果가 이 論文이다. 이 論文에서 李教授는 集賢殿의 機能속의 ‘治文翰’과 ‘備顧問’은 弘文館의 機能과 꼭 같은 記錄은 보이지 않으나 經史籍을 많이 收藏하였다는 李季荀의 集賢殿藏書閣頌에 나타난 記錄 “多收經史”의 字句에서 書籍을 收藏하는 곳이 分明하다고 하였고(p.132, 133) 權採의 集賢殿藏書閣頌의 “披閱之便, 易於反掌”이 이미 四部分類法으로 文獻을 整理하여 書架에 排列된 狀況을 描寫한 語句라는 點(p.134, 135)과 世宗實錄에 나타난 記錄 集賢殿啓를 引用하여 原則의으로 館外貸出은 許容되지 않고 있었으나 王과 王族에게는 館外貸出이 許容되었으며 官員에게도 萬不得已 빌려줘야할 경우 王에게 알리고 署名을 받은 뒤에 貸出된 例가 있었으니 이는 貸出制度의 確立을 뜻하며, 이 記事에 依據해서 “備顧問”은 물음에 應對한 參考活動으로 解釋하고 있다. 李教授가 指摘한 事例를 보면 參考奉仕에 있어서는 內容을 알린 點, 集賢殿官員의 所見까지 添加한 點, 出處를 밝혀 준 點들을 들고 있다.

要컨대, 李教授의 見解에 따르면 學者文獻士(Scholar-librarian)가 王의 咨問에 應하던 參考圖書館이 곧 集賢殿이었으며 奉仕對象은 一般公共에 公開되지 않고 王과 王室과 朝廷만을 奉仕對象으로 삼았으니, 一種의 特殊圖書館이었다(p.164)극 것이다. 이러한 特殊圖書館에서 讀書·講論·論思도 하여 새로운 情報를 生成하였으며 經筵·書筵·著述·編輯·注解·翻譯·復製·校正·印行까지도 한 것은 마치 니네베圖書館을 비롯한 古代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圖書館들을 彷彿케 하고 있다(5.165)는 것이다. 특히 參考奉仕의 事例를

보면 調査型보다는 研究型에 置重하고 있어 最大限의 參考活動을 遂行하고 있었다(p.166)는 것이다.

이 論은 從來에 史家들이 集賢殿을 보는 見解와는 角度를 달리한 것이다. 從來 史家들은 集賢殿의 機能을 ‘學問研究所’ “王立研究所” “學者養成所” “學者集會所” 심지어는 “中國古制의 研究機關”으로 보아 온데 反하여 李教授의 이번 論考는 새로운 異見을 提記한 것이다. 이 異見은 從來의 學說에 대한 反論도 될뿐 아니라 1950年代에 비로소 韓國에 美國圖書館學이 導入되었다는 論考도 否定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李教授의 이 研究는 未洽하던 韓國圖書館史를 世宗時까지 溯及 補綴한 셈이 되니 그 貢獻도 자못 높이 評價받을 만하다.

□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李春熙教授의 門中文庫에 대한 研究이다. 李教授는 오래전부터 書院研究를 해 오던 중 이번 地方巡廻의 踏查에서 奉化의 ‘映奎軒’과 大邱의 ‘壽峰學舍’가 門中文庫의 性格을 지녔던 史實을 밝혀 냈다. 李教授의 이번 研究에 依하면 壽峰精舍는 1910년에 韓末의 富豪이며 篤志家인 文樸이 創設한 것이라 한다. (p.89) 藏書는 6,948冊, 管理는 2人의 有司에 依해서 運營되었으며 그 중 1人은 書冊을 管掌하여 圖書의 貸出, 年一回의 圖書點檢을 兼한 曝曬를 實施하였으며(p.89-93), 奉仕所在 韓末의 嶺南儒林인 金資植과 金華永등에 의해 1919년에 세워진 映奎軒도 藏書 2,096冊으로 작은 規模의 門中文庫였음을 밝히고 있다. (p.93-6) 이 두 門中文庫는 書院文庫에 못지 않은 規模로서 創立動機가 다 같이 韓日合邦을 前後해서 乙巳條約 以後 우리나라 儒生들이 日帝侵略에 대한 對抗의 一環으로 나타난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새로 登場한 이 文庫는 日帝의 教育機關인 書堂을 育成하여 그들의 子弟를 日帝의 사술에 罨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保護教育을 한 곳으로 그 修學精神은 孝悌忠信의 涵養에 있었으며 壽峰精舍의 경우는 紙墨筆까지 주어 勉學시켰었다(p.97, 98)는 것이다. 李教授는 이러한 門中文庫가 書院文庫와는 달리 教育機關에 附設된 學校圖書館의인 機能은 없고, 어떤 機關에 附設되지 않은 自律의인 純粹한 小規模圖書館의 性格을 지닌 것이(p.98)라고 究明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李教授의 見解처럼 색다른 形態의 民間圖書館이라는데 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번 이러한 意義있는 門中文庫의 存在도 圖書館史속에서 聯關시켜 넣은 것은 門中文庫의 研究에 關心을 쏟게 하는 면도 되어 자못 意義가 깊다.

書誌學分野에 있어서는 活字研究로 金斗鍾博士, 千惠鳳教授, 板本分野에 있어서는 金完燮선생의 業績을

둘 수 있고, 典籍의 研究에 있어서는 李載喆·鄭謨教授의 業績을 들 수 있는 것이다.

□ 金斗鍾博士는 몇 일 전 626面に 達하는 龍大한 著書「韓國古印刷技術史」(探究堂)를 世上에 내 놓았다. 平生을 두고 坊坊曲曲의 書院을 巡廻하면서 書院板을 그 때마다 調査해서 메모한 것과 國內에 없는 義天大藏經目錄을 日本에서 調査해 내고, 國內은 勿論 國外까지 巡訪하면서 蒐集한 資料 200篇을 寫眞을 찍어 圖版으로 옮긴 이 著書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試圖된 實로 龍大하며 全體를 網羅해서 取扱한 巨著이다. 平生을 두고 研究해 낸 이 著書는 停年으로 敎職을 떠나신 후 相當한 時日을 두고 從來에 發表한 活字研究를 날(經)로 하고 日本과 國內에서 蒐集한 資料를 씨(緯)로 하여 韓國活字의 技術에 대한 體系를 세운 것이다.

그 體系중에서 全體의인 試圖를 보면 三國時代를 '上世'로 보고, 麗初부터 鑄字印書까지를 '中世'로 보고 朝鮮初부터 近代의 鉛活字의 輸入期까지를 '近世'로 時代區分하고 있다. 資料의 性格으로 이루어진 區分은 國史에 있어서의 一般史의 區分과 時期가 거의 같다. 金博士가 엮은 이 著述 속에는 從來에 全혀 發表되지 않았던 狀況과 補完部分이 적지않게 보이고 있다. 于先 두드러진 것만을 時期別로 보면 上世에서는 百濟聖王 4년에 百濟法師 謙益이 中印度 常伽那 大律寺에서 '梵僧倍達多三藏과 梵本 阿曇藏五部律文'을 가지고 와서 律部 72卷을 譯出했다는 彌勒佛光寺 記事에 대하여 金博士는 百濟聖王 4年(526)이던 中國의 南朝時代의 梁武帝 普通 7년에 該當되는데 그 때에는 中國에 印刷法이 行해졌다는 文獻이 確實치 않으니 믿기 어렵다고 論及하고, 中國에서의 雕板의 印書에 대한 發明은 東漢시대(165年頃) 또는 東晉 및 南北朝時代說도 있지만 隋朝의 開皇頃부터 唐初까지의 說이 支配的이라고 記述하고 있다(p.17) 그러나 慶州 初月山 大崇福寺의 碑銘에 적혀 있는 "東王이 詩를 印하여 贈與했다"는 句節은 否定論이 있으나 이것은 "東王이 바로 新羅의 憲康王이고, 그 때에는 우리 韓國에도 印書術이 普及되었으므로 新羅인들이 鷄林의 아름다운 山水를 咏吟한 詩를 모아 印刷하여 唐使에게 贈物로 줄 수 있었을 것(p.25)이라고 오히려 肯定하고 있는 것이다.

中世에 들어 와서는 初雕大藏經雕造論 中에서 "顯宗 2年에 契丹兵이 大舉 來征했을 때 顯宗이 契丹兵을 退治하기 위해서 大藏經을 初雕했다"(p.61)는 記事를 믿지 않고 있으나, 이것은 李奎報가 本文을 쓴 年代는 顯宗 2年으로부터 226年前인 것은 事實이지만, 國難을 防止코자 君臣들이 함께 佛天에 盟誓하는 慎重을 期하여야 할 大藏의 祈告文에 根據가 稀薄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 때는 文獻이 傳해졌을 것(p.62)이라 한다. 金博士는 이를 적어도 顯宗 2年을 지난 3,4年頃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와같은 實證은 義天의 大覺國師文集의 雕印疏에 "顯祖는 5千軸의 秘藏을 雕造했다"(loc. cit)는 記事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義天의 續藏經의 雕造重修本에 대하여는 池內 宏博士가 「大般涅槃經」을 義天의 原文으로 誤認하고 國寶로 指定하였으나 이는 日本 奈良市 東大寺圖書館의 原本과 對比한 結果 印本의 紙質이나 形態로 보아 原本이 아니라 天順 5年의 刊經都監本이라고 斷定(p.74)하고 있다.

그리고 宋·元系의 板本과 高麗의 獨自의 板本에 대하여 論及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宋版系는 海仁寺의 八萬大藏經板을 비롯하여 中末期의 官·私板本이 이 系統에 많이 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도 瞭然한 것은 恭愍王 19年板인 星山李氏의 私家版과 晉陽에서 重刊한 「近思錄集解」는 宋版本을 摹刻한 것이고 國立圖書館의 一山文庫인 「佛說四十二章經護法論」과 通文館藏本인 「經律異相」등을 宋版을 聯想케 한다(p.91)는 것이다.

또한 元版本의 系統으로는 大德年間に 流行되었던 趙松雪體法을 摹刻한 私家板本이 있다고 하며, 이 系統은 麗末鮮初의 것으로 晉州牧에서 改板한 「中府朱子或問」과 恭讓王 3年刊인 金子粹의 重刊本인 「禮記」(p.92)등이 그 實例라 한다. 그리고 私家板중에서 崔瀼의 「拙藁千百」과 李承休의 「動安居士集」 鄭直의 「雪谷詩藁」 등등은 高麗의 獨自의 傳統을 엿볼 수 있다고 論及하고 있다.

또하나 指摘한 것은 近年朝鮮에 들어와서 鮎具房之進의 「三昭補解」를 "文會軒, 陶字契新刊"이라는 記事에 依據해서 景宗 2年 壬寅에 北靑郡에 있는 陶契에서 만든 陶活字라고 보고 있는 것은 "文人들의 會合하는 契와 人格을 陶冶하는 陶"로 세가지 않는데서 錯誤를 犯하고 있으며 近者 日本學者들이 「論語集註」 小字本을 匏活字 印本으로 보는 것도 粗雜한 小活字本을 가지고 商人들이 속이는 것에 넘어가고 있다고 하며 韓國에서 匏活字本은 實用된 일이 없다고 論及하고 있다.

以上은 著書에서 돋보이는 至極히 部分만을 紹介함에 不過하나 이 책은 우리나라의 活字印刷術의 發達過程의 全貌를 體系化한 力著로서 確實히 活字研究에 寄與된바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책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224片이나 되는 活字標本을 插入한 圖版과, 우리나라에서 900年間이나 亡失되었던 「海印寺藏高麗大藏經板大藏目錄」이 또한 附錄되어 比較研究에 매우 도움되고 있다.

또하나 活字分野를 開拓한 글은 千惠鳳教授의 「古文眞寶大全에 대하여— 趙炳舜氏所藏本을 中心으로—」(歷史學報 61輯)와 「世朝朝의 新鑄의 ‘戊寅字’와 그 刊本」(한국비블리아, 2輯)이다.

前者인 古文眞寶大全에 관한 研究는 昨年에 書誌學界에서 論議되었으나 疑問點이 없지 않았던 것을 많은 文獻을 調査하고 實物을 鑑定해 내서 諸論을 展開한 것이다. 千教授는 이 글에서 趙本이 地方에서 印行된 木活字本이며 그 刊行時期를 朝鮮朝의 15世紀 中葉以後로 推定하되, 下限時期는 16世紀 中葉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다. (p.122) 그리고 한때 紙上에서 明나라의 葉向高(1559—1627) 註本인 「古文大全」을 底本으로 壬辰亂後에 刊行된 것이 아니라는 論에 대하여도 形態書誌學的인 觀點에서 檢者해서 이와는 無關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特히 中國에 있어서의 「古文眞寶」의 著討 黃堅에 대하여는 史蹟이 傳해지지 않고 있어 推理가 어려웠던 問題를 著者·字·鄉貫地 및 生存年代를 밝혀 냄으로써 北宋末 南宋初의 編纂說을 否定한 것(p.105—8)등 또한 不朽의 勞作일듯 하다.

그리고 後者인 ‘戊寅字’ 研究는 千教授가 일찍이 1966年 10월에 開催되었던 「서울大學校 創立 20周年記念貴重圖書展示目錄」 속에 「交食推步法假令」의 大字를 丙辰字로 整理한데 疑問을 가지었다고 하니 이 研究의 시작은 7年前으로 看做된다. 이 글자에 대하여는 1965년에 發行된 「奎章閣圖書韓國本目錄」에도 이와 같이 ‘丙辰字’로 적혀 있다. 이 책은 活字중에서 中字와 小字만은 世宗16년에 鑄造한 初鑄甲寅字로 疑議가 없으나 大字는 ‘丙辰字’가 아니라는 것을 千教授는 밝히고 있다. 千教授가 이와 같이 밝히고 있는 것은 몇가지 堂堂한 理由가 있다. 그 하나는 綱字를 晉陽大君 琛로 하여금 쓰게 하여 字本으로 삼고 世宗 18年の 金屬活字 丙辰字本인 「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綱」과 對比했는데 그 結果는 「交食推步法假令」이 丙辰字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字樣도 均整을 이루고 있으며, (p.106) ‘丙辰字’가 字劃을 바르게 그어 別로 버릇이 없고 筆力에 迫力이 없이 옆으로 퍼진 楷書體인데 비해, 이 「交食推步假令」의 大字는 當時 流行되었던 鷗波 松雪體의 特異한 버릇이 걸드려져 있으며 筆力이 사뭇 생생한 네모꼴의 字體였다는 點(p.107)을 들어서 ‘丙辰字’가 아니라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이 假令의 刊行年代에 대하여는 李純之가 金石梯와 더불어 世宗에 整理해 놓은 「交食推步法」과 「算誦」에 假令注解를 붙일 것을 王에게 알린 內容이 序文에 世祖3年(1457) 丁丑 12月 24日로 밝혀져 있고, 바로 翌月인 同王 4年(1458) 正月에 序를 썼다는 點과, 바로 同年 8월에 刊行된 「易學啓蒙要解」와 比較해 보아 이 冊의 成立이 앞섰으니 이해를

바로 戊寅年이라는 時期로 判定해 낼 수 있다(p.108)는 것이다.

더욱이 千教授는 이 活字의 鑄造된 時期를 世祖 4年 正月부터 數個月以內일 것으로 본 根據로는 李純之가 世宗 16年(1434)에 甲寅字를 鑄造할때도 鑄造業務를 管掌했던 官吏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事實로 볼 때 活字의 鑄成은 勿論 그 印書까지도 그가 工曹參判의 職에서 謝恩使로 産出되어 明에 派遣되었으니 아마도 그 以前인 世祖4年 3月 13日까지는 完了되었을 것으로 看做된다.(p.130)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推理를 더욱 굳히게 하는 것은 몇달전인 世祖3年(1457) 9月 下辭에 世祖가 그 달 初 2일에 天逝한 儲宮 懿敬世子(追尊·德宗)의 冥福을 빌기 위해 많은 佛經의 繕寫와 刊行을 命했으며 그 중에도 王 自身이 親書한 글씨를 寫本으로 丁丑字를 新鑄하여 「金剛經五家解」 100件을 印出하는데 所要된 時日이 몇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史實을 들어 世祖 4年字本을 立證하고 있는 것(loc. cit)이다.

여기서 千教授가 研究한 ‘戊寅字’가 活字系譜에 오를수 있게 되었으니 實로 우리나라 活字史研究에 있어 자못 큰 成果라 아니할 수 없다.

## 5

□ 板本研究에 있어서는 金完燮先生의 「詞訟類聚板本考」(도서관 v.29 no.9)를 들 수 있다. 이것은 從來 板本の 對照없이 簡略히 說明해 준 것을 여러 板本을 對照해서 改題本등에 대한 聯關性을 밝힌 것이다. 이 論考는 먼저 改題本卷末의 丁熾의 跋文과 編者의 아들인 金泰廷의 識에서 이 著述의 編者가 金伯幹임을 推定해서 萬姓大同譜를 對聯해 系譜를 밝혀 놓고 光山 金氏族譜를 調査해서 그의 生歿을 알아 낸 結果 中宗 11年 (1516)에 나서 宣祖 15年(1582)에 卒하였고 武科出身의 아들이고, 明原君顯의 딸과 結婚해서 安山郡의 郡守를 지냈고, 死後에 吏曹參判의 贈職까지 받았으며 泰廷·泰國의 두 아들을 둔 出自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그가 郡縣의 在任時에 編纂한 것으로서 原稿本은 「訟訟要語」였으며 그것은 “訟訟을 審理함에 옮고 그 큰 것을 分辨하여 百姓으로 하여금, 두터워서 服從케 하여 마침내는 訟訟이 없게 하려는 意圖” 아래 손수 “大明律·經國大典과 그 註解, 前後의 續錄, 各年受教등을 參考하여 編纂한 것”으로서 처음에는 贊成인 沈希安의 校讐를 받아 이를 刊行코자 하였으나 이루어 못하고 있다가 아들인 金泰廷에 依해서 書名을 「詞訟類聚」로 改題하여 刊行된 것(p.29)이라 한다.

初刊本은 高大的 石洲文庫 속에 들어가 있는데 唯一한 孤本이 傳來되고 있으며 이 책에는 卷首題가 없이 바로 本文에 들어간 것으로 本文中에는 法典의 引用과

註解와 受敎는 陰刻으로 하고 註와 受敎日字는 小字로 되어 있으며 區分이 다른 續錄의 文章사이나 受敎의 다른 날자 사이에 ○表示로 區分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p.31) 그리고 改刊本은 正確한 刊記가 없어 從前에는 이것을 初刊本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誤認을 하기 쉬운 改刊本은 國立圖書館과 高大와 田鳳德씨의 所藏本으로서 外題는 「詞訟錄」이라 墨書되어 있으며, 精接紙로는 物産關係 古文學 寫本과 木板本 通鑑을 쓰고 있으며, 板心の 花紋魚尾는 帳마다 不整하고 本文은 初刊本과 거의 같으나 다른 곳이 여덟곳(p.32, 33)이나 있다는 것이다. 第2破 앞面 끝行의 未刻部分은 初刊本の 張張으로 確認할 수 없으나 國立圖書館 所藏本の 「決訟類聚」에 依해서 「前續錄」임을 알 수 있었고, 想白本에도 缺刻되어 있음을 알아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先生의 推定에 依하면 初刊本을 보고 刊行했거나 初刊本の 覆刻은 아니라는 것을 字體와 魚尾에서 알 수 있으며 仁祖 6~13年刊으로 推定된다는 것이다.

三陟本 「聽訟指南」은 前記本과 對照한 結果 「詞訟類聚」의 改題本으로 서울大와 高大藏本이라는 것이다. (p.33) 이 本의 板式은 初刊本과 改刊에서의 出典에 대한 陰刻字가 陽刻으로 되어 있어 本文과 出典을 識別해 내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受敎에서 날자가 밝혀진 곳에는 當該 欄上에 朝鮮朝의 年號를 밝힌 것으로서 李聖基가 三陟都護府使로 赴任한 孝宗7年(1656) 겨울에 「詞訟指南」冊을 얻어 李元翼의 戒書를 붙여 刊行한 것이니, 때가 겨울이므로 孝宗 8年(1657) 頃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詞訟指南의 「詞訟類聚」의 異名이 確實한 것은 書名의 첫 두字가 같고 內容도 같음을 보아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p.34)이라 한다.

永川本 「決訟類聚」는 初刊本에서 直接 改刊한 또 다른 改題本임(p.35)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國立圖書館과 서울大藏本으로 「決訟類聚」라는 卷題가 있으며 項目的 區分이나 本文의 內容은 前記 初刊本·改刊本·三陟本과 꼭 같으나 項目에 붙인 番號와 續錄과 受敎 사이에 쓴 白圓圈이 墨圈으로 된 것이 있다한다. 이 책은 刊記에 依해서 永川에서 改刊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木板本으로 全州初刊本이며 仁祖 27年 6月부터 12月 사이에 刊行된 것(p.37)임을 論及하고 있다.

事實 古書는 時代가 오래면 오래수록 改題할 憂慮가 있어 板本の 比較없이는 同一의 內容을 가진 책일지라도 改題에 따라 識別이 表面上 어려운 것이다. 이 研究는 이런 點을 밝혀 놓았고, 各種 異本の 差를 系統的으로 分析해 놓은데 功이 크다.

□ 典籍研究에 있어서는 于先 李載喆教授의 ‘天命圖說에 대하여’(한국비블리아 2輯)를 들 수 있다. 李教授는 鄭之雲의 「天命圖說」에 대하여 이 著作을 1537年에 着手, 6年만인 1543年에 草稿의 完成을 보고 10年 뒤인 1553年에 李滉의 訂正을 받아 그 이듬해인 1554年에 이를 初刊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板本에 대하여는 鄭之雲自身이 쓴 草稿와 李滉의 訂正을 받은 訂正本을 들 수 있다고 하며 編者도 李滉 單獨으로 고친 것과 自身과 合議下에 訂正된 두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大部分의 板本에는 後者의 두가지가 ‘舊圖’와 ‘新圖’란 이름아래 收錄되어 있고, 訂正을 받기 前의 原圖인 鄭之雲의 草稿圖는 綾城本에서 찾아 볼 수 있다(p.15)는 것이다.

舊圖의 두가지 本은 “四端은 理에서 생기고, 七情은 氣에서 생긴다”(p.17)는 것과 “四端은 純理에서 생기므로 善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七情은 氣를 兼하고 있는 탓으로 善도 있고 惡도 있다”(loc. cit)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新圖는 “四端은 理의 發이오, 七情은 氣의 發일뿐”이라고 修正되어 있는 것이 舊圖와 新圖의 差라고 하며 舊圖는 1640年의 全州刊板과 1646年과 1651年에 刊行된 日本의 譜板 및 內閣文庫本이 있고, 新圖는 1560年 11月부터 1578年 6月 사이에 刊行되었음을 推定(p.35)하고 있다.

天文圖의 構圖는 陰陽의 生成消滅의 輪廻過程을 圖型으로 輪廓을 잡고 上圖下方·頭圖足方式을 配圖하여 天人合一의 原理를 表示하고 四德五行圖와 天命圖의 限界點을 設定해서 心性氣質과 情意善惡의 關係를 區分해 놓은 것이다 한다. 鄭之雲의 原圖와 李滉의 訂正圖間의 差는 亦是 있어 舊圖가 下記에 子方水旺을 始發點으로 한데 反해 新圖는 上記를 子方水旺을 始發點으로 삼았다고 解圖하고 있다. 그리고 新圖는 四七의 發은 表示하지 않았으나 訂正圖는 이를 表示한 것으로 推定(p.36)는 것이다.

大體로 이 天命圖는 性理學의 理氣二元論의 立場을 取하면서도 氣보다 理를 重視한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이의 刊本은 初刊本實物이 없고, 傳來된 것은 1578年刊의 綾城板本과 1640年의 全州本, 趙穆後記本 등이 國內에 있고 日本에는 1621年의 林羅山跋本과 無跋無刊記의 內閣文庫藏本이 있을 뿐(loc. cit)임을 밝히고 있다.

周易繫詞에서 나온 太極圖說이 周惇頤에 依해서 無極而太極이라는 說이 나온뒤 伊川(程頤)의 理氣論이 易傳에 실리자 陸象山의 理氣一元論이 나와서 心則理, 知行合一論을 王陽明이 主張해 내서 道の 合致·不合致가 揮然一體가 되어 公喜怒理發說이 나왔는가 하면 徐敬德의 理氣一元의 二元論이 나오기도 했다. (12面に 계속)

소풍학습의 탈을 벗겨 줄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975年度에는 學校圖書館部會에 研究分科委員會를 두고 研究하여 많은 論文이나 發表會를 갖으면서 여론화 시켜야겠다. 이렇기 爲해서는 豫算의 뒷바침이 있어야 한다. 도서관협회에서 협조해 줬으면 하지만 도서관협회는 협회대로 經濟面의 실마리가 풀리지 못하고 있으니 따로 會費를 거출해서라도 적극적인 活動만이 學校圖書館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 4. 結 言

많은 統計를 제시하면서 많은 말을 했으나 내자신이 圖書館에 對한 專門家도 아니며 또 좀 안다 할지라도 全國 學校圖書館運營實態를 完全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回顧라기 보다 中언부언이 되고 말았다. 뿐만아니라 새해에 希望의인 方法이나 운영지침이 될 수 있는 內容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自體의 運營上의

問題點만 나열 한것 같다. 그러나 母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運營上의 目的을 비롯하여 設置規定, 豫算問題, 資料規定, 司書教師의 資格의 再검토, 進路問題, 배치規定 등 尙한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데나 同法의 哲學이 一般圖書館에 準하고 있기 때문에 敎育課程과의 關係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전혀 無視당하고 있다. 그래서 독서지도面은 전혀 언급이 돼있지 않고 資料運營面과 圖書館利用面만 나타나고 있다. 이런點을 감안하여 圖書館이란 文化事業이면서 奉사가 따르기 마련이니(희생적인 奉사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法規를 초월하여 새로운 것을 다른 部門에서보다 빨리 찾아서 研究하고 실험하고 시범을 해서 發展에 發展을 거듭하는 1975年度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때에는 法規나 行政部가 그렇게 마냥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21面에서 계속)

이것이 다시 四端七情分理氣復(高大升)까지 誘導되어 退溪와의 主理說과 對立을 이루었던 것은 다 아는 事實이지만 朱子系統의 居敬窮理·理氣二元論을 이은 李彥迪의 理氣二元論과 李滉의 主理思想이 서로 엮인 속에서 問題되던 一部의 이 圖의 性格을 밝힌 것은 資料解說에서 意義있는 일이다.

□ 끝으로 蛇尾를 붙일것은 鄭駉讓教授와 筆者가 共同으로 엮은 「順菴 安鼎福 研究序說」—그의 生涯와 著述을 中心으로—(人文學 1輯)이다.

近間 影印된 「順庵叢書」 下學指南 속에는 黃泌秀 글씨의 이른바 順庵著述目錄에 依據, 順菴의 著述이 48種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그 著述 속에는 檢討되지 않은 책들이 더러 있다. 著述할려고 뜻을 두었다가 이루지 못한것도 있고 남의 것을 베껴진것도 들어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러 圖書館에서는 安鼎福의 글씨로 된 것은 모조리(베껴진 것이거나 아니 베껴진 것이거나 심지어는 그가 所藏하고 있었던 책까지도 모두) 安鼎福著書로 編目을 해 놓고 安鼎福著述로 貸出을 하고 있다. 그 數는 100을 훨씬 넘어 200에 內迫하고 있는 것이다. 이 稿에서는 「安鼎福研究」를 進行하는 중에서 그의 著述로 表示된 것을 일단 모두 檢討하는 立場에서 親筆本 「日省錄」과 「日記」 속에 있는 木川縣監當時가지고 갔던 「持來目錄」과 平素에 적어 두었던 「著述雜錄」을 發見, 實物과 對照해서 安鼎福의 著述與否를 가렸고, 또 그 밖의 著述은 實物은 없으나 年譜와 行狀 및 書札속에서 그의 著述의 種類를 밝힌 것이다. 그 結果 著書로는 23種, 雜文으로는 60餘種일뿐 (p.23, 32)임을 記述하고 있다. 그리고 從來에 安鼎福의 號가 「順庵」으로 알아 오던 것도 「집의 構造를 따

서 지은 「菴」字로서 「順菴」(p.10)이었고, 星湖의 弟子가 아니라. 私淑(p.8)한 處地였고, 四端에서의 善情論도 孟子의 影響을 받은 것(p.15)등을 밝히고 있다.

#### 6

以上 紹介한 글들은 적어도 年餘以上の 時間을 所要한 것으로 獨創의이어서 글의 壽命은 적어도 오래 維持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紹介한 글중에는 흠을 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深奧하게 研究되었으며 主題가 작고 論理가 整然하고 漸新하여 好感을 갖게 한다. 더욱이 他人의 說을 引用하는데 汲汲하거나 紹介로 一貫하거나 讀者를 敎育하거나 勸導하는 筆세는 全혀 풍기지 않고 史料도 原資料를 取扱해서 究明한 것들이다. 따라서 올해의 收穫(이밖에도 있겠지만 紙面上省略)이 이 몇 篇만으로도 足하다.

또 하나 반가운 것은 올해에 通過된 碩士學位論文 네篇이 두 誌에 轉載되었다. 여기에 그論文을 一一히 紹介치는 못하나 題目이 새롭고 內容도 忠實한 印象을 준다. 外國理論을 韓國의 實情에 適用시키며 問題를 提起한 것도 있지만, 圖書館에 接近될 수 있는 主題로서 全혀 未開拓分野를 着手하여 誠實히 研究하려는 姿勢도 보여 더욱 好感을 주고 있다.

끝으로 豫報해 둘 것은 千惠鳳教授의 癸未字에 관계되는 論文이 이달안으로 「書誌學」 7輯에 실려 나오기로 되었고, 鄭亨愚教授의 「中國印刷術의 發明과 그西傳」(by Thomeas Francis Carter, reviced by Luther Corrington Goodrich, 1955. 2nd ed.)의 譯書도 脫稿되었다고 하니 올해의 業績을 더욱 빛내 줄것으로 期待된다(1974. 12. 1)